

올해 서울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대문 운동장 철거로 연등 행렬 출발 장소가 동국대 운동장과 장충체육관으로 나눠 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날담지 않게 씩씩하고 비가 내릴 기미까지 보인 날씨 탓에 동참 인원이 예년보다 적었다.

특히 장충체육관의 경우에는 극소수에게 입장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연등축제 행사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동국대 운동장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연등 축제 행렬 출발에 앞서 현재와 같은 대형 행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제등행렬은 해가 갈수록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장엄등이 등장하여 행렬 동참자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불교 국가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제등행렬이 있지만, 우리나라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고 다양한 장엄등이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교도들만의 축제이지 국민 축제 성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도 과거 전통시대에는 '정월보름' ? '단오' ? '7월 백중' 등등 매월 국민 전체가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있었지만, 근대화 이후 이 모든 것을 잊거나 잃어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는 누가 뭐라 해도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작아서 아름다운 축제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다.

특히 제등행렬과는 별도로 조계사 앞에서 펼쳐지는 '불교문화마당'은 몇 해 전부터 외국인들의 관람과 참여가 눈에 띄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불교문화를 알리고 나라의 관광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대한민국에 전해주시는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처럼 긍정적인 내용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몇 해 전부터 몇몇 대종과 대형사찰들에서

대규모로 참여하고 화려한 대형 장엄등을 준비하면서 축제를 빛나게 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작은 절의 신도들은 위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축제가 불참하는 소형 사찰들이 늘어났고 불교계에서도 '큰 곳'을 선호하는 풍조를 낳았다.

세상 모든 곳에서 "큰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라며 대형화하고 있지만, 불교 집안에서 만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 달리 불교경제학자 슈마허의 말처럼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중요한 원칙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해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뒤 이를 상징하는 대형 장엄 등 몇 개 정도만 만들면 안 될까.

신도를 대규모로 동참시키고 큰 상징물을 만들어오는 대형 사찰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타 종교의 공격적 선교와 정부의 종교 편향 등으로 위축된 불교도들의 가슴을 활짝 펴게 해주고 "우리도 이런 정도의 힘이 있다"며 보여줄 필요는 인정되지만, 과연 현재처럼 대형화 추세를 계속해간다면 "큰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흐름이 문명의 붕괴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기로 몰고 간 주범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된다.

지난해부터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맞아 '소유지족'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히 되고 있는 시점이다. 명년부터 열리는 연등축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기본 원칙에 맞추어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제까지의 틀을 바꾸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임은 잘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니 결코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5월의 테마-가정

인류가 최초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가상의 낙원인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나?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는 약 100만 년 전 원시인류가 두발로 걸어 다니면서부터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류가 일어나 걸으면서 전두엽에 모인 신경세포의 발달로 기억력이 증가되어 원시농경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유지하나 마 원시가족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계기인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가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그 처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인 5월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달이다. 그것은 석탄일과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등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고귀함을 간직한 축일이요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평소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가

모두 받아들이는 보살심 갖기를...

족 구성원 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사회의 건강함을 보려면 가정의 안락함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세에 우리 사회는 일제압박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60-70년대 군사독재와 근대화라는 과정이 미해결된 채 80-90년대의 법난과 민주화 및 IMF를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가족의 붕괴 및 사회지도자층의 부정부패에 따른 권위체부재로 인한 문제, 물질지상주의의 문제,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양심불양의 문제, 여권운동의 어긋난 방향설정과 인구조절실패 및 이혼율증가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불확정적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를 사회학자인 오그본(Ogburn)이나 정치학자 앨몬드(G. Almond) 등은 사회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외 없이 우리의 심각한 사회병리 중 하나는 90년대 들어와 꾸준히 증가한 이혼율이다. 물론 이혼 숙려기간제의 도입 등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주춤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면 유·청소년들의 충격을 개인당사자는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제를 유발할 수 있다. 부처님 제자 중 신봉제일이었던 목건련존자는 전생애 어머니께는 불효하고 아내만을 사랑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떤 힐센 장수가 저 늙은 처 죽일 수 없을까?"하고 포악한 말을 했다. 그 후 존자는 500생 동안 타살의 인연이 계속됐고, 출가해 아라한이 된 후에도 이교도들에게 타살되는 업을 받았다. 프로이트(S. Freud)나 펠라니 클라인(M. Klein)의 학설을 빌리지 않아도 어머니의 역할은 유·청소년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사회구성원으로서는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청소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보살의 마음이 돼 중도의 조화를 이루기를 기원 드린다.



도각 스님
원효무애출존선종보존회장
자연지유학 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디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FAX (02)737-0696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평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얻을 수 있는 방편(方편)이 있다
 * 한명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책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로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생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은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